

자기주도성 기반, 개성 있는 생기부와 학업역량 강화

‘보물을 찾아 떠나는 인생 여행의 시작’의 뜻을 품고 있는 보인고(학교장 김범두)는 미래를 주도할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학교이다. 학생들에게는 ‘가고 싶은 학교’로, 학부모에게는 ‘신뢰받는 학교’로 자리매김하며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꾸준히 연구하며 전문화된 교사들의 학생 관리,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은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의 화합을 이끄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박경숙 리포터 kitayama47@naver.com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자기주도학습 중시

2023학년도에 보인고는 각 학년 12학급, 1학년 373명, 2학년 364명, 3학년 355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향상과 더불어 다양하고 체계적인 학교 활동이 펼쳐지며 알찬 고교생활을 통해 적성과 진로찾기, 진학으로 이어지는 활동이 짜임새 있게 이어지고 있다.

오양욱 교감은 “인권과 진로, 적성에 바탕을 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기본 생활 습관 형성과 인성의 기초 위에 학교 교육 과정의 혁신을 통한 기본 교육 내실화가 중요합니다. 또, 활기차고 즐거운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 구성원이 꾸준히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보인고의 꾸준한 노력은 학생들의 학교 만족도에서도 그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서도 눈여겨볼 만큼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학습 능력에 공백이 생긴 학생들은 상담과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성적향상을 이끌었으며, 학생맞춤형 입시 준비와 진학지도를 펼치며 좋은 결과를 낳았다.

블라인드 대입에도 강한 생기부, 탄탄한 정시 준비

김웅천 3학년부장교사는 “대입에서 블라인드 입시로 인해 자사고에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은 통하지 않았습다.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 연계 활동, 적성과 진로 역량이 알차게 담긴 생기부와 학생들의 탄탄한 실력은 2023년 대입에서도 굳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내신 2점대 중후반 학생이 수시로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고, 수능을 잘 본 학생들이 많아 수시 면접에 응하지 않거나 논술 시험을 치르지 않는 경우도 늘었습니다”라며 “수년 전부터 블라인드 입시 대비를 위한 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과 개성 있는 생기부 완성, 확대되는 정시 대비를 위한 학생 실력 향상에 많이 집중했던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보인고 학생들의 대입 합격은 수시와 정시가 1:4 정도의 비율을 보인다. 2023년 대입에서 서울대에 수시 4명, 정시 19명, 전체 23명이 합격했다. 연세대와 고려대에도 수시와 정시를 합쳐 각 40명 내외의 학생이 합격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성균관대와 한양대 역시 수시와 정시를 포함, 각 학교에 35명, 39명의 합격생을 배출했다.

표1) 주요 대학별 합격 현황 (중복합격 포함, N수생 포함)

구분(명)	수시	정시	계
서울대	4	19	23
연세대	12	27	39
고려대	17	25	42
서강대	2	13	15
성균관대	11	24	35
한양대	11	28	39
중앙대	8	75	83
경희대	4	25	29
한국외대	0	18	18
서울시립대	1	9	10
건국대	6	31	37
동국대	6	15	21
홍익대	4	15	19
계	86	324	410

* 특수대학 : 11명 (경향대1, 육사1, 공사3, 해사1, KAIST 2, UNIST 1, POSTECH 2)



출했다. 특히, 중앙대에는 정시로만 75명이 합격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이공계 특성화대학과 사관학교 등 특수대학에도 11명이 합격했다.

재학생 중심의 높은 입시실적 달성

최근 3개년 간 보인고의 진학 추이를 살펴보면,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파·강동지역에서 타 고교에 비해 눈에 띄만한 대입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시 확대 중심의 대입제도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전체 합격자 중에서 정시 비율이 높은 추이를 보인다.

서정민 교육연구부장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시 준비는 꼭 하도록 지도하며, 수능 준비를 위해 교과교사와 상담을 통해 단점을 찾아 매꾸는 방식, 교사들의 체계적인 교과 연구와 자기 계발을 통한 전문성 강화가 함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정착되며 재학생 중심의 입시실적 달성이 타 자사고나 강남권 고교와 달리 높게 나타납니다”라고 강조한다.

보인고는 최근 3년 중 2022학년도에 입시실적이 더욱 많이 향상되었으며, 2023학년도에도 유지가 되었다. 올해는 SKY 104명, 서울 상위 10개 대학에 333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중에서 재학생 비율은 서울대 65%, 연세대 72%, 고려대 76%, 상위 10개 대학 63%를 차지한다.

그동안 보인고에서 서울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중학교 내신성적과 고교내신을 비교해보면,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위)이 20% 내외였던 학생 여러 명이 고교내신(전과목등급)을 1점대~3점대 중후반까지 받고, 수시와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합격했다. 이는 보인고 입학 후 학생들이 다양한 학교프로그램 속에서 성장해나간 모습으로 파악할 수 있다.

표2) 최근 3개년 진학 추이 (중복합격 포함, N수생 포함)

구분(명)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SKY	80	108	104
의치약한수	19	66	48
SKY 서성한	166	213	193
서울 상위 10개 대학	276	344	333
서울 상위 13개 대학	371	421	410

표3) 전체 합격자 중 정시 비율 (중복합격 포함, N수생 포함)

구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서연고	56%	65%	68%
서연고서성한	56%	71%	71%
서울 상위 10개 대학	63%	76%	79%

배풀고 성장하는 ‘스터디그룹’과 ‘멘토링활동’

보인고의 학생 활동 중 중요한 부분은 학생 간 협력활동이다. 전 학년에서 펼쳐지는 스터디그룹과 멘토링활동은 학생들에게 안정된 학습 습관과 동기부여, 성적향상, 학교생활 적응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2 학생의 경우에는 진로와 전공을 확정해나가는 시기이고, 고교 내신도 완성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교과 관련 1:1 멘토링활동을 통해 2학년~2학년 및 2학년~졸업생 간 정보를 나누며 성장하는 시간을 이어갑니다. 교과 및 전공 관련 3~5인 구성의 스터디활동, 선배들의 우수한 생기부 사례 분



석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기부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구체적으로 갖습니다”라고 김용진 2학년부장교사가 설명한다.

자기주도학습 및 계획 공부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관련 스터디플래너 활용 특강도 전문가에게 들으며 자신의 생기부 방향성과 세특으로의 연결, 진로·진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간다.

이영인 1학년부장교사는 “꾸준하게 이어온 멘토링활동과 스터디플래너 코칭 프로그램은 보인고 학생 간 ‘배풀며 살자’는 봉사 정신과 학습 자존감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1학년은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생이 지도하는 스터디플래너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을 줄이고 학교생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활동은 학생 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협업, 또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 자존감을 높이는 활동, 중하위권 성적의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도하며 학습 격차 감소를 이어지고 있다. 또,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의 생기부에 인성 및 발전 가능성 영역의 소재 발굴 및 기록으로도 쓰이고 있다.

학업·공동체·진로역량 키우는 ‘메타인재자율연구과정’

보인고의 특색프로그램인 메타인재자율연구과정은 학생이 참가한 프로그램에서 갖게 된 지적 호기심과 탐구 의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후속 연구 활동을 의미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교내 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을 단발성 행사로 여기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자기 계발을 촉발할 수 있는 매개체로 활용한다.

곽광용 창의체험부장교사는 “학생들이 지닌 역량을 이끌어내고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예를 들어 금요진로특강에서 대학교수,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심도 있는 연구 내용과 지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공동체 역량이 드러나는 봉사활동 역시 학생의 재능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운영합니다”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과 공동체, 진로 역량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생기부에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메타인재자율연구과정의 요소입니다”라고 설명한다.

보인고 특색프로그램

스터디그룹 및 멘토링활동 : 또래 또는 선·후배간 활동
스터디플래너 코칭 프로그램 : 졸업생 또는 전문가 초청
전공연구 다빈치칼리지 : 진로와 전공탐색
학급회장 간담회 : 학생 인권, 건의사항 수렴
학업 역량 : 메타인재자율연구과정 (후속 연구활동)
진로 역량 : 금요진로특강, 방학 중 진로캠프
공동체 역량 : 의료지원봉사, 졸업봉사, 생태계봉사, 또래상담 등
학부모 소통 : 보인페어런팅포럼, 학부모 독서모임 운영, 아버지날 엮서 쓰기